

기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한반도 서남단에 외로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흑산도다. 흑산도는 흑산군도(黑山群島)로 대장도, 대문도, 다물도, 영산도를 휘하에 두고 있다. 특히 대장도는 망덕도를, 대문도는 솔섬, 신녀섬, 설섬을, 다물도는 승섬, 공섬, 상·하죽도 등 자도(子島)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서쪽에는 홍도가, 남쪽에는 가거도의 초병들도 있다. 섬의 형세가 마치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무찌르던 충무공의 함대와 닮아 있다. 그래서 그쪽 바다는 늘 든든하다.
이처럼 흑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해는 먼 바다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삶의 근거지와 어장은 지금보다 한참 협소해졌을 것이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비와 바람을 견디며,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해양생물들이 바다물에 의지하여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새들도 일찍이 터

흑산도,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를 잡아 살기도 하고 저 멀리 강남을 오가는 새들은 잠시 날개를 접고 쉬어 가기도 한다. 그들이 섬의 주인이었던 셈이다.
옛그제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겨울 올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들은 잘 싸웠으며,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했다. 적대를 거두고 평화의 두근거림으로 평창은 감동의 역사를 남겼다. 성공요인도 또 하나는 새로 만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자 산간오지가 사람으로 붐비게 된 것이다.

흑산도 공항 8년째 계획 수준

이처럼 접근성이 개선되면 특정행사를 성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길을 놓고 더 빠른 이동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흑산도는 여전히 배길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 배의 크기와 속도만 빨라졌을 뿐 지금도 목포에서 2시간, 서울에서는 7시간이 걸린다. 이마저도 하늘이 허락해주어야 할 수 있다.
2011년, 정부가 흑산도의 운명을 바꿀 만한 큰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편의도도, 해양 전진

기지, 해양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총 부지 547천㎡, 활주로 1,200m 규모로 50인승 이하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에만 머물러 있다.
이유는 환경이다.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다양한 조류의 이동로가 단절되고 보호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며 보존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류충돌가능성, 철새유인서식지 조성, 공항의 입지대안 검토 등의 재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흑산도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 한해성(環海性), 해양성 기후로 인한 생물자원의 다양성, 오래된 고립으로 형성된 고유성과 특수성, 인간의 발길이 드물어 자연이 잘 보존된 까닭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치를 모른바 아니다.
사람도 자연과 함께 공생해야 한다. 흑산공항은 흑산도 총 면적의 3%정도만 편입되고, 그곳에 겨우 4차선 고속도로 1.2km를 놓는 것과 같은 사업에 불과하다. 흑산도의 자연과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도수백km에 이르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에 비해 환경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추측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럼에도 이들 사업은 멈춘 적이 없다. 따라서 흑산공항에만 환경문제로 머뭇거리면 너무 가혹한 잣대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개발을 서둘렀고, 다른 생명들의 위기는 등한시했다. 오래 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 추진된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물은 흘러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마저 외면하는 바람에 생명을 뿔뿔 단 강은 물 무덤이 되었다.

접근성 개선위해 조속 건설을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 보존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흑산도의 경우 해안습지를 철새 먹이터로 활용하고, 기존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한 휴경지에 먹이를 공급하여 대체 서식지 효과성을 높이고 보존상태가 좋은 해안지형은 피하는 등 환경수용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기능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국립공원 변경 계획의 재보안 자료를 제출하였다 한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보안을 신중하게 심의하여 흑산공항 건설이 하루 빨리 시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절실한 이유는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



최종욱
우치공원사무소 동물진료담당

“산토끼 토끼야 어데를 가느냐?... (중략)...산고개 고개를 나홀로 넘어서, 토실토실 발톱을 주어서 울 테야.” 이 노래에서, 토끼가 어떻게 발톱을 주워 울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간다. 다람쥐나 청솔

동요 속 동물들의 진실은?

모 그리고 월승이라면 입안에 먹이주머니(협낭)가 있어 얼마든지 넣어 울 테지만 토끼는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쾅거루처럼 배낭을 가진 것도 아니고.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 까치의 설날은 어저께일까? 궁금해서 살펴보니 역사학자는 신화설(까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설하에서), 국어학자는 어원설(작은 설날을 가리키는 아저설에서 유래)을 주장하는데 그것도 속 시원치 않고, 혹시 까치가 겨울 나기를 위해 우리보다 일찍 설빔으로 갈아입는 것(깃갈이)을 보고 그런 가사를 지어냈을까? 그런 너무 생물학적인 나만의 해석일까?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암마소도 얼룩소 암마 닮았네.” 얼룩소가 젓소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재래종인 ‘취소’였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그 작사자(박목월, 1930)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젓소를 구경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 그때엔 취소가 지금의 젓소처럼 흔했던 말인데, 도대체 그 많았던 토종 범무늬 취소들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모여서...” 글썽! 개구리가 일가를 이룬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 또 우리나라 개구리는 수컷만 운다는데, 웬 며느리까지 울고 그럴까? 정말이라면 진짜 해외토픽감인데.

솔개가 낚은 부리와 발톱을 역지로 뽑아 내고 새로 부리와 발톱을 갈면 원래 수명 40년에 40년을 더해서 80년을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혁신’의 모범 예라고 한다. 가만히 떠 있어도 바람 따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를 물 속에서 발을 열심히 움직이니까 빠져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중동하라는 교훈으로 삼으라고 가르친다. 모두 다 그럴듯한지만 열심히 동물들을 관찰하고 문헌을 뒤져 보아도 그런 특이한 사실들을 어디에서도 발견해 내지 못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이나 가사를 지은 것일까? 아니면 문학은 원래 그런 거니 대중 넘어가려는 것인지 도대체 했갈린다.

사설

금타 노사 골든타임 허비 말아야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킬러 전 채권단이 해외매각이나 법정관리나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아 두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해외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외부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가 부실기업인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데서 보듯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부실기업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채권단은 노조측에 이달 말까지 자 구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 서 노조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채권단이 제시한 시한은 하루하루다 가오며 회사의 운명이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노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나 정치권, 채권단이 해결책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성동조선 등 다른 부실기업 처리와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사 스스로 회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성동조선 처리에서 보듯 정부는 앞으로 부실 기업에 대해 ‘명분과 근거 없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제시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노사도 현재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인식하고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주문한다.

전두환씨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해야

‘5·18 회고록’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전두환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이 최근 두 차례나 발부됐지만,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다. 불응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18 회고록을 출간한 전씨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발부된 소환 통보를 거부했다. 대신 전 씨는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조 신부는 생전에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

니다’고 적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족과 오월단체는 지난해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확인조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검찰은 전씨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 절차나 방법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 전씨 회고록 일부내용이 다름의 여지가 있다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전씨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검찰은 강제수사나, 서면 및 방문 조사나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씨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회고록에 고의로 이같은 내용을 수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인
사장·발행·편집인 崔永基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99 광고문의 720-1017
기사제보 (062)720-1050-56 사회 2부 (062)720-1043-44 인쇄처 다원 인쇄
F A X (062)720-1080-82 문 제 부 (062)720-1045
E-mail=jndn@chol.com
는 설 실 (062)720-1032 전 산 팀 (062)720-1033
정 치 부 (062)720-1060-62 사 진 부 (062)720-1040
경 제 부 (062)720-1065-67 광 고 국 (062)720-1017
사 회 부 (062)720-1050-5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충효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새 봄을 맞는 초임 경찰관의 다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다. 경찰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나에게도 봄이 왔다. 어깨에 무궁화 꽃봉오리 2개를 달고 경찰관이 된지 벌써 7개월, 나는 초심을 잃진 않았나 생각해본다.
첫째, 나의 치안 수요자는 노인이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가장 절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3·3·3」효도순찰을 하는 것이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노인들을 만나면 3분 간 3가지 정진하고 3번 맞장구치는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다.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는 “요즘에는 경찰관들이 한결 친근하고 따뜻하다”며 말씀을 해 주셨다. 경찰관으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노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노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기억에 남을 경찰관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둘째, 단순 민원도 성심성의껏 해결하자.
지구대 근무 중 형사사건 이외에 단순 민원 또한 많았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주기,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등이 있었다. 단순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해주면 문제해결책을 건네 받은 국민들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미소로 응답해준다. 단순 민



장은석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원인 경찰관의 기본이고 밑바탕이며 다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활력소가 된다는 점 명심해야겠다.

셋째, 가슴으로 다가가자.
어떤 민원인을 만나든, 어떤 상사와 동료들 만나든, 역시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 사람 자체를 어려워하고 불평해하는 사람에게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마음이 닫힌 사람이라도 꾸준하다가면 언젠간 마음을 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껏 했던 업무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업무가 많은 사회 초년생이자 갓 7개월 된 경찰관으로서 잊지 않고 항상 가슴으로 먼저 다가간다면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경찰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진 속 세상

첫 노지 모내기



12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서 농민들이 올해 첫 노지 모내기를 하고 있다. 순천시는 조기 재배 단지 130ha를 조성해 7200t을 생산해 ‘하늘아래 첫쌀 순천협쌀’ 브랜드로 판매할 예정이다. /순천시

독자광장

준법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탄핵 집회에서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여겨왔던 청와대·헌법재판소 주변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이는 과거 집회 현장인 불법폭력 집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위용품과 쓰레기가 난무 했는데 이번 평화문 집회는 달랐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청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불법 시위 유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16년 불법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사랑스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선민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유머@세상

◇위험한 며느리
어떤 아줌마가 시어머니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디.
대부분 남자 운전자들이 여자 운전자들에게 먼저 길을 양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많은 남자 운전자들께서 아줌마에게 양보해 주셨고 그때마다 아줌마는 고마워서 손을 한 번씩 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가서서 아들에게 하는 말.
“며느리 함부로 밖에 보내지 말고

라. 만나는 놈들마다 손흔들고 인사하고 이놈 저놈 다 알더라.”

◇커피
서울 남자 4명이 강시골 마을로 출장을 왔다가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주변에 카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방에 들어가 아가씨에게 주문을 했다
남자 1: ‘난 ‘헤즐넛’
남자 2: ‘난 ‘아메리카노’
남자 3: ‘난 ‘카푸치노’
남자 4: ‘음... 그럼 난 ‘카라멜 마끼야또’ 이렇게 주세요.
레지: (검을 짹짹 씹으며) 여기 3번테이블, 커피 4잔이요.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망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청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조선대병원 220-3114